



요한 1

요한복음 1
Tape #8069
By Chuck Smith

성경을 죽 훑어가는 중에 이제 요한복음 제1장에 이르게 되었다.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1:1)

창세기 1:1(“”)과 매우 흡사하다. 요한일서의 첫 부분과도 흡사하다. “”(요일1:1).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는 제2절에서 강조한다(1:2).

우리는 하나님은 3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한 분이시다(성부와
성자와 성령) 라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창세기 1:1에 나오는 하나님은 복수
형태(엘로힘)로 사용되고 있다. 이 복수 대명사는 창세 이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창 1:26). 우주 창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울은 골로새서 제1장에서 예수님은 물론 조물주시라고 말한다. “”(골 1:15-17).

계시록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룹 천사들에게
들러싸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소리는 듣게 된다. 그러자 장로들은 그 노래 소리에
화답한다. “”(계 4:8,11).

그러므로 여러 민족이 경배하는 여러 신들이 있지만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 단 한 분이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런데도 성경에 의하면,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비이성적인 행위이다.

무리에타 온천에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정결을 위한 씻음인데, 사실
씻어버려야 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동성 연애자들이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그리로 내려가서 지하 5만 피트로부터 솟아오르는 물에 몸을 담근다는 것이다. 그
온천의 깊이가 5만 피트라는 말이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발을 담그는 이유는
지구라는 어머니 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지구를
경배하는 태도인데, 뉴에이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지구를 예배하면
청결함을 얻게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지만, 그들은 영원히 찬양 받으실 조물주보다는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지금 이런 태도가 유행병처럼 세상에 번지고
있다.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제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1:3).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로고스에 의해 피조되었다.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듯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1:3).

바울은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나열한다. 정사와 권세 등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열거한다.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골 1:16).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사도가 공회의 위협을 받은 뒤 사도행전 제4장에서 기도를 드린 내용대로, 이 전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것이다.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행 4:24). 생명 있는 모든 형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조물주라는 내용이다. “”(1:4).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요일 5:12). 여기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10:10).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영구적인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다. 이 생명은 그분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1:4).

빛은 이 세상의 어두움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어지는 요한의 말이 그런 의미이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비취나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1:5).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보아도, 이 구절의 희랍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잘 알 수 있다. 꼭 맞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희랍어가 몇 개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곳이 그런 경우이다. 한 번역본에는 “어두움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으나, “깨닫다”나 “이해하다”나 모두 인식하여 하는 것을 나타냄은 물론이다.

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두움이 그것을 잠재우지 못하더라” 또는 “어두움이 그것을 삼키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비취고 있는데도 어두움은 그것을 제거하거나 삼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아니다. 어두움은 빛을 잠재우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빛을 제거하려고 애썼다. 사람들은 늘 그래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

“”(요 3:19,20). 주님은 여기서 이 빛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빛으로 가까이 오려 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빛을 없애고자 한다. 빛이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행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것이 어두움 속에서 비취고 있었으나 어두움은 그것을 없앨 수가 없었다. 애를 쓰지만 빛을 가릴 수가 없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마 3:14).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1:6).

이것은 하나의 작은 괄호에 해당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인으로 왔으며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려고 왔다(1:6,7).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은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데 있다.

요한은 제20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20:30,31). 그러므로 요한이 얘기하는 바는 그의 의도적으로 이 글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예수님 생애의 몇몇 사건을 기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함이다.

그가 증인으로 온 것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함이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거를 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 빛(예수)은 참 빛으로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춘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은 자기 사람들에게로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1:8-11).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강조하기를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비극이었다.

그런 비극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조물주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 생명의 빛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서 등장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게 비춰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고 말씀하셨다. 음부의 권세는 빛을 없앨 수가 없다.

중국에서 빛을 없애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 왔다는 얘기는 흥미롭다.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은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을 투옥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구금되었다. 수년 동안의 박해가 있었다. 그런데 빛을 없애려던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후 죽의 장막이 걷혔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니 중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이 밝혀졌다. 수백 만 명의 신자들이 가정 교회에서 모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수년 전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나는 한씨라고 하는 정부 지도자 한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자 그는 차 한 잔을 하자고 권했다. 그는 우리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했다. 그는 중국의 한 지방에서 주민의 90% 가량이 기독교 신자가 되게 된 한 사연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그가 들려준 기독교인들 얘기 중 재미난 부분이 있었다. 그 당시 중국 각 지방은 추수기가 되면 모두 일정량의 곡식을 정부에 바쳐야 했다. 그들이 공출한 곡식을 싣고 갈 트럭들이 10마일, 때로는 15마일을 늘어서곤 했다. 당국자들이 그 모든 곡식단들을 조사하며 점검하는 데 수 시간이 걸리곤 했다.

그러나 그 지역 출신 기독교인들은 곧바로 앞으로 나와서 짐을 부려놓고 가곤 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만 신속히 짐을 부리고 가게 하느냐고 불평을 했다. 당국자들의 대답은 이와 같았다: 그 신자들이 가지고 오는 쌀은 언제나 품질이 최상품이기 때문이다. 돌이나 자갈 같은 게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곡물의 무게를 더하기 위하여 돌이나 자갈을 첨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곡식은 오랜 시간을 들여 세밀히

검사한다는 것이었다.

기독교인 지역에서 나오는 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부는 잘 몰랐지만, 아니 오히려 그 빛을 끄려고 애썼지만, 당국자들은 그 빛의 효험을 경험할 수는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인들 지역에서는 언제나 질이 좋은 쌀로 그들의 할당량을 채워 납품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한 증인이었다. 주님이 오늘날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증인들이었다.

요한이 온 것은 바로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는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출 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이다. 세상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로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다니 참으로 비극이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사 9:6,7). 그것은 오셔서 다스리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다. 바로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와 같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사 53:3).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싫어 버림을 당하였다. 다니엘의 예언은 이와 같다. “육십 이이레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단 9:26). 그렇다. 그분은 끊어져 없어지셨다.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으나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1:12).

오늘 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그분을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요일 3:1,2).

물론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온 세상은 함께 신음하며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느니라”(롬 8: 15,17,22,23).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 권능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1:13).

구원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신다. 거듭 난다는 것은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1:14).

도성인신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1:14).

보다 더 글자 그대로 다시 말한다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셨다. 이것은 도성인신의 신비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다. “”(딤후 3:16). 예수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을 함에 있어서 성경은 매우 분명하고 매우 단호하다.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라는 인격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점을 성경은 누차 강조한다.

저 경이로운 책 히브리서는 그 서론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런 교훈을 제공한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주 창조 시에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음을 재차 선언하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골 1:17)]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난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히 1:1-6).

히브리서는 조물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흡사한 선언을 하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표출된 형상이시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And that is why 예수님 in the fourteenth chapter of 요한복음 제14장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14:9).**

이렇듯 그분은 육신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일 1:1). 말씀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도다(1:14).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이다(1:14).

“”(요한 3:16).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예수님과 동등시 하려는 자들이 있다.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양자가 되었을 뿐이다. 그에 비해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압지의 독생자”이시다.

물론 교도들은 예수님을 루시퍼의 형제로 만들고 싶어한다. 그렇게 되면 루시퍼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실은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요한은 그분을 증거하였다(1:15).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책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은 그 사실을 목격한 여러 증인들을 우리 앞에 내세울 것이다. 마치 재판정에 서서 한 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처럼 그는 여러 증인들을 불러들인다. 그가 데려온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이다. 그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다. 그는 또한 성령을 증인으로 내세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한다. 이렇듯 그는 이 복음서 안에서 자기가 진실이라고 긍정하는 바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들을 몰아오고 있다.

추가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이 쓰여진 이유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책은 불신자들에게 읽으라고 권고할 만한 것이다. 이 책의 의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서에는 매우 흥미진진한 성구가 있다. “”(사 55:10,11).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주신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확정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가 그 말씀을 읽을 경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심겨질 것이다. 요한은 그분을 증거하였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1:15).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으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므로 요한은 예수님보다 선배였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확인하였다: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여기서 그는 영광 가운데서 선재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그분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이다(1:16,17).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 요한은 자신이 그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1:18).

여기서 다시 한 번 “독생자”가 강조되고 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이다(1:18).

다시 말하면, 완전한 계시 가운데서 그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을 쳐다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모세야 너는 나를 보고서도 살 수는 없느니라. 네가 바위 틈에 거하면 내가 지나갈 터이니 그 때 너는 나의 후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니라(출 33:18,20,22). 그런데 그 후광은 너무도 강렬해서 그의 얼굴은 빛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는 자기 얼굴을 천으로 가려야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가 없음이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셨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을 보내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고 물었을 때의 기록이다(1:19).

요한이 세례를 주고자 요단 강으로 내려갔을 때 많은 이들을 그를 따랐다. 그는 인기 있는 선지자였다. 사람들은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종자들을 그리로 보내어 그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네가 누구이며 너는 어떤 권위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그들이 물은 질문이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1:20,21)?

너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신 18:15).

그는 아니라 고 대답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1:21,22)?

여기서 그들이 요한보고 네가 엘리야? 고 물었을 때 재미 있는 일이 하나 벌어졌다. 요한은 아니라 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아버지 사가라는 제사장이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제1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사가라는 두 주간에 걸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갔으며 주님께 향을 드릴 순번을 맞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러 제단으로 다가가 보니, 가브리엘 천사장이 제단 곁에 서 있는지라 그는 소스라쳐 놀랐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가랴여 두려워 말라. 네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무슨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것인가?

그는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도 매우 늙어서 그들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다. 그들은 아들을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오고 있던 터였다. 그들이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을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라 고 천사가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하였다: 그녀가 매우 나이 많이 들었으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허리가 굽어지고 골다공증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네가 표적을 원하느냐? 고 물었다. 그 아이를 낳는 날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천사는 그 아들을 낳게 되는 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고 명하였다. 그 아이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받아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킬 자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약속하셨다. 그 엘리야는 메시아와 왕국 시대의 전조가 될 것이니라. 그 때 이후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려 왔다.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은 언제나 문을 열어 두었다. 엘리야가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그들은 항상 식탁에 여분의 접시 하나를 마련해두곤 하였다. 우리도 메시아의 전령인 그를 위하여 자리를 하나 마련해 두고 싶다. 사실, 구약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약속은 바로 이 엘리야에 대한 것이었다. 엘리야가 죽은 후 즉 세레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후에---세레 요한은 헤롯 임금 앞에서 춤을 추던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 참수되었다---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11:7-10,14).

그렇다면 예수님도 세레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요한 자신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을까?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말라기의 예언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분의 왕국을 준비할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성서에서 말씀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올 것이니라 너희가 이 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말하겠는데,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느니라 고 대답하셨던 것이다.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입고 왔지만 요한은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왕국을 세우리라는 예언의 성취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와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였다. 어쨌든 그는 엘리야의 영광과 권능으로 온 선발대였다. 그리고 엘리야는 장차 올 자이다.

요한계시록 제11장에서 우리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그 중의 한 명은 분명히 엘리야일 것이다. 다른 한 명은 누구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하라(1:22).

우리가 보냄을 받은 목적은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하니 네가 누구인지를 말하라. 네가 누구라고 우리가 전언하면 되겠느냐?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1:22,23).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너희에게 말하기 위하여 온 자니라. 당시 국왕이 자신의 왕국을 둘러보고자 할 경우에는 선발대가 먼저 가서 사람들을 모아 길을 닦던 습관이 있었다. 돌들을 제거하고 낮은 곳을 메우고 길을 부드럽게 하여 왕이 도착했을 때 순탄하게 지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왕이 지나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의미하는 바였다. 길을 정비하고 정돈하며 단장하라. 왕이 지나가신다.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나는 왕이 오신다 길을 예비하라 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언하기 위하여 미리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네가 엘리야나 그 선지자가 아니라면 너는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고 하였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서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나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니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므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 자니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1:24-29).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선언은 이와 같았으니,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속죄제 희생제물로 쓰이는 어린 양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일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니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게 된 사건 말이다. 그들은 죄를 지고 가는 희생 양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선포한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썼다. “”(벧전 1:18,19).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자 하나님의 희생 양이 되셨던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즉 그가 사랑하던 외아들 이삭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는 산에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을 부르고 아들을 대동하여 3일 길을 걸어 헤브론에 도착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리아 산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종들로 하여금 산기슭에서 기다리게 한 후 아들만을 데리고 산을 오른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한 가지 잊으신 게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없으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했다. 아들이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거기다 올려놓은 후 칼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되었다. 멈춰라. 그만 하면 족하도다.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렸으니 그것을 취하여 제물로 드려라. 네가 나에게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드린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신대로 되었음이니라(창 22:3-14).

그러므로 사람들은 희생제물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고 선언했다. 그곳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며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흔쾌히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셨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도다(1:30-33).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그분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나는 보았고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으로 남겼노라(1:34).

여기에 우리의 증인이 있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증인이 있으니, 요한은 내가 보았고 내가 증거하였노라 고 말하였다.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이 있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1:35,36)!

여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물론 우리는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며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보라, 바로 이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붙어 있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너무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교회 내에서도 교인들이 자기 주위에 사람들을 불러모으려고 애쓴다.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귀속시키려고 애썼다. 자기 사람들을 떼어 예수님께 보내려고 애썼다. 자기의 두 제자에게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았다. 그들이 뒤따르는 것을 돌이켜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랍비여, 어디 사시나이까? 라고 물었다(1:37,38). [여기서 요한이 랍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해석한 것에 유의하라. 그의 해석에 의하면 그 단어는 주인이나 선생을 의미했다.]

선생은 어디 거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와서 보라 고 말씀하셨다(1:39).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모으는 일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하였다.

그들은 와서 주님을 거하시어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거하였다: 이미 오후 4시 경이나 되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은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1:39,40).

우리는 안드레에 대한 흥미 있는 이야기를 몇 번 읽게 된다. 그의 이름은 언제나 사도라 일컫는 이들과 함께 등장하지만 우리가 안드레를 만날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었다. 전도하는 게 그의 직임인 듯이 보였다. 많은 이들이 산에 올라 말씀을 들을 때, 한 소년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를 가진 것 외에는 먹을 게 없었던 적이 있다. 예수님은 그 애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은 바로 안드레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희랍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뵙고싶다고 말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저들이 예수님을 뵙고싶어 한다고 말하였다.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요한 12:20-22). 이렇듯 안드레는 언제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는 먼저 자기의 친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다시 한 번, 그는 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를 만났도다 (1:41).

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단순한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메시아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시아라는 용어가 상이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대할 때 우리는 성과 개인 이름 식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는 그분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직책으로서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아름다운 이름인데,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즉 예슈아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명을 선포하는 말이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이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지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요한은 그 단어를 희랍 사람들에게 해석해주었다. 희랍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 또는 기름부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왕이 치세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기름 한 병을 그의 머리에다 부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만드는 예식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왕이셨다. 하나님이 왕으로 지명한 분이셨다.

여러분은 주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명하신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복종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치자의 직위에서 해임하셨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내려갔으며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다. 장남 엘리압은 외모가 수려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 그를 보자 사무엘은 틀림없이 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모든 아들들이 지나간 후에 사무엘은 말했다.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 아닙니다. 작은 아이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애는 들에 나가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애입니다. 그를 데려오세요. 다윗을 보자 사무엘은 일어나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은 이 노인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동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까? 그가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그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으며 그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직임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며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리켰다. 물론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신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이신 대제사장이기도 하시다. 제사장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다.

안드레는 나가서 자기의 형제 시몬을 만나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다고 말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리고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자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고 말씀하셨다(1:42):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셨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너는 게바[다시 한 번 유의하라. 필자는 여기서 ‘반석’이라고 해석해주고 있다]라 칭하게 되리라(1:42).

이는 페트로스라는 히브리어를 희랍어로 번역한 결과이다. 여기서 이 희랍어는 영어로 번역되어 돌[stone]이 되었다. 너는 게바라 칭하게 되리라.

다음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들어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다(1:43),

유의하라. 안드레는 베드로를 만나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다른 요한의 제자를 찾으러 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빌립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나를 따라라 고 말씀하셨다(1:43).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 만나신 사람이 있다.

이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었다(1:44),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안에 있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오천 명을 먹이신 곳 근처였다.

그곳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했다(1:44).

소년 시절부터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빌립은 나dana엘을 찾아 나섰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주신 후, 빌립은 나dana엘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을 보았도다 라고 하였다. 모세가 율법서에서 말하고 선지자들이 언급한 나사렛 예수를 만났도다(1:45),

그분을 나사렛 출신이라 칭하는 게 필요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에 해당했는데 많은 이들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다. 매우 많은 이들이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무개는 베들레헬 출신 여호수아야, 벳세다 출신 여호수아야 또는 나사렛 출신 여호수아야 하는 식으로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나dana엘은 예수님을 보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1:46).

나dana엘이 그렇게 조소한 것을 보면, 나사렛이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 못한 동리가 분명하였다.

빌립은 나dana엘에게 와서 보라 고 말하였다(1:46).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 사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도 와서 보라 고 대답하였으니, 흥미로운 일이다. 나dana엘은 무슨 좋은 게 날 수 있겠느냐 고 의심을 품었지만, 그는 단순히 와서 보라 고 답하였다.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다. 맛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노력도 해보지 않고, 맛도 보지 않고, 와보지도 않고 이러니 저러니 평을 한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자들이다. 우선 와서 보라. 체험해 보라. 성경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라 고 초청한다. 이것은 분석하고 연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멀리서 관조한다고 될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여해보아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dana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1:47)!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는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나dana엘은 나dana엘은 예수님께 말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부터 보았느니라. 나dana엘이 대답했다: 럽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다른 증인 나dana엘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1:48,49).

기름부음을 받은 자,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셨다.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고 내가 말함으로 네가 믿느냐? [기다려 보아라. 너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너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니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1:50,51).

여러분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낫을 피해 도망하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가

베델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피곤함으로 등을 베개하고 눕게 되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이다. 땅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꿈을 꾸 후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진정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하였다. 어제 밤 내가 사력을 다하여 달려 피신함으로 인해 녹초가 되어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 황폐한 돌작 밭에 하나님이 계시리라고는 전혀 예기치 못했는데 말이다. 나는 피곤에 지쳐 잠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황폐하고 황량한 곳에 계셨구나. 그분이 여기 계시는도다. 보라, 그분이 여기 계시는도다. 과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시도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는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황량한 여러분의 인생의 별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길으로 보이서는 전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깨달았을 경우,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 된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는 듯하다: 나는 사닥다리니 나로 인하여 하늘이 땅과 이어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느니라.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들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였다. 그들은 사닥다리인 나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맞닿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욥이 찾아 헤매던 것이기도 하다. 그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으며 그의 친구들도 그랬다. 그의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여보게 친구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게. 그러면 일이 잘 될 걸세. 욥이 응수했다: 고맙네, 친구여.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분을 만날 수 없었다네. 하기가 내가 감히 누구관대 내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겠나?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겠나? 그분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광대하신 분이러네. 그분이 어딘가엔 계시는 게 분명하지만 그분은 너무 광대하여 내가 그분에게 이를 수가 없다네. 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중재자가 있었으면. 우리 양자를 모두 접촉할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욥은 자기의 곤경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나 나는 너무도 왜소하구나. 내 존재는 너무도 초라하구나. 우리 사이의 간격은 너무 커서 그 어느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다. 나는 그분께 이를 수 없으며 그분을 만질 수가 없다. 나는 내 사정을 호소할 수가 없다. 오, 우리 사이를 중재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 모두에 손이 닿는 존재가 있었으면.

말씀은 하나님이였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었으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나를 만져주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께서 나를 만져주신다. 이는 바로 욥이 찾아 헤매던 것이며, 욥이 필요로 하던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을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를 이해하고 만지실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어 아버지와 또한 접하실 수가 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분은 우리 양자를 모두 접촉하실 수가 있다.

제1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록은 이와 같다. 이제 요한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동안 예수님의 이적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제시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적을 행하셨지만, 요한은 그 중에서 몇 가지 특별한 것만을 고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을 섭렵하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한히 감사하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접하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접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을 접할 때 우리는 당신을 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옵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이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드리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